



공공 실내 체육시설 일반인 개방 언제쯤?

실외는 전면개방... 실내는 전문 체육인 제한 운영 도, 생활방역위원회 심의결과 따라 개방여부 결정

최근 제주지역 공공시설의 단계적 개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 실내 체육시설의 전면 개방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체육이 공공 실외 체육시설인 경우 전면 개방된 반면, 공공 실내 체육시설은 전문 선수 등에겐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어 실내체육을 즐기지 못하는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 2월부터 임

시 폐쇄됐다. 이는 당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은 물론 도서관, 미술관, 경로당 등 도내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최근 도는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19일부터 방역 지침을 다소 완화했다. 현재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 체육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실외 공공 체육시설은 전면 개방된 반면에 실내 공공 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면서 여전히 일반 생활체육인들의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실내 체육시설의 재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김모(42)씨는 "야외 체육시설은 전면 개방된데 반해 실내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방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과 위생 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실내 체육시설 개방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실내체육관 전면 개방과 관련해 도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로, 향후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공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전면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생활방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 실내체육시설의 재개방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타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 제주 방문

도, 통보 받고 역학조사 중 중대본 지침 따라 목록 공개

타지역 확진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타지역 확진자 A씨와 B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검체를 채취해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와 B씨로부터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입·출도 당시 이용한 항공기내 접촉자와 CCTV·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역학조사 완료 후 '중앙 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에 따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 정보를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표준 예시에 맞춰 공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의 정보는 역학조사 완료 후 도 홈페이지를 통해 목록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 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버스터미널 인근 주행 중 차량 보행자 치고 다리 아래 추락

제주시 오라2동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고 다리 아래 추락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버스터미널 인근의 한 다리를 지나던 승용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와 승용차와 부딪힌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서순실 보유자가 이끄는 제주큰굿보존회가 31일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한림 한수풀 해원상생굿'을 펼치고 있다. 이상근기자

한수풀 찾아 죽은 자와 산 자를 위로하다

4·3 72주년 해원상생굿 제주큰굿보존회 위령굿 현장 증언과 시·노래·춤

굿판이 열리자 금악리에서 왔다는 박모 할머니(89)는 관람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영혼영신님네"를 부르며 영가를 달래는 심방의 사실이 이어지는 동안 할머니의 울음 소리는 더 커졌다. 제주도 주최,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4·3 72주년 '한림 한수풀 해원상생굿'. 가슴에

쌓인 한을 쏟아낸 뒤 주최 측에 "고맙다"는 말을 전한 박 할머니는 영혼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빌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4·3 당시 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희생됐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 할머니였다.

2002년 구좌읍 다랑쉬굴을 시작으로 4·3학살터를 돌며 해마다 펼쳐온 해원상생굿 열여덟 번째 행사가 한림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치러온 제주민예총의 제27회 4·3문화예술축전 프로그램이 어렵사리 현장에서 마련돼 발길을 모았다. 이 자리엔 한림읍은 물론 중문·대정 지역 유족들이 함께했다.

이날 해원상생굿은 학살터에서 소리지른 울음 불어내고 모셔오는 초혼 풍장 일행이 행사장에 도착하면서 막이 올랐다. 서순실 보유자가 이끄는 제주큰굿보존회의 초강제, 희생자 유족인 명월리 강순아 할머니의 증언, 이종형 시인의 '각명비' 낭송 시보시, 싱어송라이터 최상돈의 창작곡 '그리운 옛 님-한수풀 바람(願)' 노래 보시, 마로의 '순지오름 꽃놀이' 춤 보시, 서천꽃밭 질지기가 이어지며 눈물로, 신명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로했다. 제주큰굿보존회는 굿판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소박한 음식 나눔도 준비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안전책임자 의무 회피하는 이석문 교육감"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성명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안전책임자'의 직책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 안전보건책임자는 교육감"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직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또는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안전보건책임자가 교육감이 아닌 정채기확실

장이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및 각급 기관 관리감독자도 학교장 및 기관장으로 하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심지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송은범기자

패러글라이더 추락해 '중상'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착륙 중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11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운동장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오던 A

(62·제주시)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착륙 직전 패러글라이더 줄이 엉키면서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도 소과형 감귤!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